

이었다.

희망하는 자녀수는 2명(54.02%)과 3명(31.06%)으로 평균 희망자녀수는 도시·농촌 각 2.4명이었으며 희망자녀수에 대한 성별에 있어서는 딸·아들함께 원하는 비율의 반응은 21.45% 뿐이었다. 이와같은 한국사회내에 뿌리박힌 남아선호사상은 소자녀를 가지려는 태도형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가족크기의 결정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 3. 인구문제의 인식

응답자들은 국내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 심각한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74.82%), 주거지역별(도시·농촌)로는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p < 0.05$ ), 교육정도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1$ )

세계의 인구증가 역시 대단히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94.26%), 또한 인구증가문제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비교할 때 마찬가지로(57.75%)와 인구문제가 더 심각하다(30.63%)는 반응이 높았으며 인구증가와 생존경쟁은 상당히 유관한 것으로 나타났고(97.35%) 향후 10년간 인구증가율은 현재보다 감소하거나(39.31%), 비슷해야 한다. (33.36%)는 경향이 높으나 이러한 전체인구에 대한 반응과는 달리 앞으로 원하는 자녀수는 2.4명으로 나타나 아직 인구문제와 가족규모와의 관계는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증가가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주요성의 순위는 식량문제(52.08%), 사회문제(21.45%), 경제발전문제(13.41%)로 제시되었다.

## 도시지역 유배우 여성들의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24권 제8호, pp. 116~121, 1981.

이영자·박영숙

1978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유배우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의 개념, 지식, 태도 및 실천상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

가임연령군(20~44세)은 74.3이며 89.9%가 가정주부이며, 교육수준은 국졸이 39.3%로 가장 많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수준은 낮았다.

### 2. 개념과 태도

알맞은 수의 자녀를 적절한 터울로 낳아 잘 기르는 것이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은 78.0% 출산을 저하를 위한 피임위주의 개념은 22%이었다. 또한 가족계획에 대하여 거의 모두가(95.7%)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3. 자녀수

부부가 자녀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견은 87.9%이며, 평균 소자녀 수는 1.3명, 다자녀 수는 4.2명이었다.

#### 4. 지 식

자녀를 적당히 조절해서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임방법이나 구독 또는 시술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상태는 84.7%이며 이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정도, 결혼연령이었다.

#### 5. 실 천

현재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율은 45.3%, 무경험은 43.3%이며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었고, 종교와 교육정도는 실천과 관계가 없었다.

출산을 저하를 위한 피임위주로서의 가족계획의 지식수준이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실천율이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에 참여하고 피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피임보급위주에 의한 출산력 조절사업을 계속 강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인구문제 및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내용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소자녀 가치관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남아 선호사상을 타파하려는 등의 사회제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일부지역 보건간호사의 지역사회 보건자원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전북도내 보건간호원을 중심으로 —

대한간호, Vol. 20, No. 3, pp. 58~64, 1981.

#### 정 영 숙

전북도내 보건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보건간호사업 수행시 보건자원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보건간호사업 수행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보건자원 이용은 기혼자, 보건사업 종사기간이 긴 경험자, 참고서류철을 비치한 자에서 이용도가 높았다( $p < 0.05$ ).
2. 보건자원 이용은 성격, 앞으로의 보건사업 종사계획, 연령과는 무관하였다( $p > 0.05$ ).
3. 보건자원 이용에 있어 인적자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개업의가 제일 많이 이용되었으며 기관자원은 동사무소(46.0%)가 제일 많이 이용되었고 전문보건기관 이용은 4.8%이었다.
4. 보건자원 이용시 기관 및 인적자원의 반응은 대부분이 협조적인 반응을 나타